

활동 1

성품이 진지함

몰몬서 1장 2절과 15절을 읽으면서 “진지”라는 단어에 표시한다. (진지하다는 것은 경건하고 신중하며 사려 깊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경전에 기록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1924~2015)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경건과 불경건을 보아 왔습니다. 높이 칭찬할만한 것들도 많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경건함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미세한 계시의 통로를 막음으로써 대적의 목적을 채워 주고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계시는 경건을 통하여 옴”, 1992년 1월호, 25쪽)

- 일부 사람들은 불경건하게 취급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경건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다루어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구주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진지함(경건하고 신중하며 사려 깊음)의 모범을 보이시는가?

활동 2

깨닫는 것이 빠름

몰몬서 1장 2절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빠름”이라는 구절에 표시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를 때, 우리는 신속히 보거나 주목하며 순종합니다. 보고 순종한다는 이 두 가지 요소는 모두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르게 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몰몬은 이 은사를 행함에 있어 인상적인 모범을 보여 줍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보고 깨닫는 것이 빠름”, 『리아호나』, 2006년 12월호, 16쪽)

- 여러분이 신속히 보거나 주목하고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친구에게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해 주겠는가?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깨닫는 것이 빠름에 대한 모범을 어떤 식으로 보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